

청정바다 완도의 겨울 별미로 미식 여행 즐기세요!

유자, 김, 굴, 매생이, 삼치 등 다섯 가지 겨울 별미 선정

완도군은 청정바다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자연 그대로 키운 농산물이 풍부한 곳으로 겨울철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줄 '완도의 5대 겨울 별미'를 선정했다.

'완도의 5대 겨울 별미'는 유자, 김, 굴, 매생이, 삼치이다.

'완도 유자'는 온난한 해양성 기후 속 해풍을 맞고 자라 과피가 두껍고 향이 진하며 품질이 우수하다.

유자는 비타민C가 일반 감귤류보다 많아 피로 해소, 감기 등 호흡기 질환 예방, 면역 세포 기능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된다.

완도에서는 유자를 썰러드, 해산물 요리 등에 스스로 곁들이거나 유자 막걸리·맥주 등으로도 개발해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

해조류의 본고장 완도에서 생산되는 '김'은 정화 작용과 영양 염류를 생성하는 맥반석으로 형성된 해역에서 자라 연구를 통해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을 정도로 품질이 우수하다.

일반 해조류보다 단백질 함량이 많고 비타민, 칼슘, 철분, 인 등 영양 성분을 두루두루 함유하고 있어 '미네랄의 보고'라 불린다. 김은 바삭하게 구우면 고소함이 배가 되고 겨울에 채취하는 물김은 무침, 전 또는 따뜻하게 국으로 끓여 먹으면 속이 든든해진다.

'완도 굴'은 알맹이가 크고 탱글탱글하며, 비타민과 미네랄은 물론 칼슘, 인, 철분 등이 풍부해 체력 회복에 좋은 건강 식품으로 꼽힌다. 바다 내음 가득 품은 굴은



회, 구이, 찜, 전, 튀김, 무침, 국, 파스타 등으로 즐길 수 있으며, 겨울에는 매생이를 넣어 끓인 뜨끈한 매생이 굴국은 기력 보충에 그만이다.

'매생이 주산지'인 완도의 어민들은 요즘 겨울바람을 뚫고 매생이를 수확하느라 분주하다.

매생이는 조류가 완만하며 물이 잘 드러나는 곳,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만 자라는 '무공해 식품'인데 '완도 매생이'는 청정 해역에서 자라 이물질 부착이 없고 품질



이 좋다.

식물성 고단백 식품으로 철분, 칼륨, 탄수화물, 무기질, 비타민 등 각종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다.

'조록 비단'이라 불릴 정도로 식감이 부드러워 튀어 먹거나 국, 전, 칼국수, 파스타 등에 넣어 먹으면 완도 겨울 바다의 풍미를 한껏 느낄 수 있다. 찬바람 불면 살에 기름이 오르기 시작해 겨우내 가장 맛있는 생선, '삼치'도 완도의 겨울 별미다.

완도/장선우 기자

장성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역 내 농어촌 민박업소를 숙소로 제공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숙박비의 60%,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되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민박 신고를 완료한 장성지역 농어촌 민박사업자와 민박 활용 숙소를 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동시에 모집하고 있다.

장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 문제 해결 나서 민박 활용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시행

접수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신분증을 지참해 장성군 농산유통과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는 고용 농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군은 2월 중 권역별로 숙소를 지정하고

민박업소와 약정을 체결한 뒤,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민박업소 운영 주민에게는 수익 창출

의 기회를 줄 방침"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가 완공되면 거주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동화농공단지 앞 남평리 일원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 중이다. 연면적 1103㎡, 지상 4층 규모로 오는 11월 경 준공할 계획이다.

장성/황해연 기자

보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새해 복 더하기 신년 이벤트 추진 2월 18일까지... 기부자 100명 추첨 경품 제공

보성군은 2026년 새해를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확대하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월 18일까지 '새해 복 더하기 신년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성군이 아닌 개인 기부자를 대상으로 하며, 행사 기간 중 보성군에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라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이와 함께 3만 원 상당의 지역 답례품이 제공돼 기부자는 최대 13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벤트 종료 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100명을 선정해 네이버페이 모바일쿠폰 1만 원권을 경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추첨은 2월 19일에 진행되며, 당첨 경품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 발송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e음(lovegohyang.go.kr) 누리집과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전국 농협은행 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기부도 가능하다.

보성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



는 기부를 통해 지역 발전에 동참하면서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새해를 맞아 많은 분들이 보성군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보성녹차, 보성녹둔·한우, 농·수·특산물 세트, 보성사랑상품권 등을 포함한 총 102종의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농수산물 및 자원을 활용한 이색 답례품 구성을 통해 기부자의 만족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보성/김문기 기자

카메라 뉴스



곡성군, 한·중 우호 교류 홈스테이 사전 설명회 열어

전남 곡성군은 지난 20일, 2026년 겨울방학 기간에 추진되는 한·중 우호교류 홈스테이에 참여하는 중학생과 학부모, 인솔 교사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홈스테이 일정과 프로그램, 안전관리 사항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참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6년 겨울방학 한·중 홈스테이는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4박 5일간 진행되며, 관내 2개 중학교에서 선발된 10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학생들은 우호 도시인 중국 절강성 보타구에서 홈스테이를 체험한 뒤, 중국의 국제적 상업 도시인 상하이 이동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등을 탐방할 예정이다.

곡성/이경수 기자



회산 사평빨래방, 타 지자체 벤치마킹으로 확산

회산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6일 함평군 대동면 주민자치회 관계자들이 회산 사평빨래방을 방문해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대동면에서 추진 예정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이불세탁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동면사무소 관계자와 주민자치회 임원 등 총 8명이 참여했다.

이날 ▲사업 추진 배경과 운영 현황 설명 ▲시설 및 장비견학 ▲운영체계, 인력 구성, 예산 운영 방식 등을 공유하며 현장 중심의 경험을 나눴다.

대동면 관계자는 "사평빨래방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방식이 인상 깊었다"라며, "앞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 방법을 접목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산/김중환 기자



함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교육 성료

전남 함평군은 "지난 20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재영상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제도 개정 사항 안내와 인권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읍·면 담당자와 올해 상반기 계절근로자 고용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은 올해 새롭게 변경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침을 농가에 신속히 전파하고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농촌 인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군은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 주요 개정사항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적정 주거환경 기준 준수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